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탈구조주의적 해체

Poststructural Deconstruction of  
Physic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방법전공

최 용 수

2009년 2월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탈구조주의적 해체

Poststructural Deconstruction of  
Physic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지도교수 서 명 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방법전공

최 용 수

2008 년 11 월

최용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민 호 인

심사위원 고 전 인

심사위원 서 명 석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년 12월

## 국문초록

### 초등학생 체육과 교육의 탈구조주의적 해체

최 용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방법전공

지도교수 서 명 석

현행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은 하나의 지배적 담론의 질서 하에 놓여 있다. 그런데 담론은 그 시대에 있어 진리이거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해석의 질서를 형성한다. 그 질서의 중심에 구조주의가 있다.

구조주의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본질 보다는 그것의 배후 구조를 찾아내고 그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중심을 둔다. 그런데 구조의 구성 요소들은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한 관계 형성은 한 체제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목표 달성의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주의적 특성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사태에 내축되어 있다.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구성된다. 이 네 가지 구성요소는 하나의 체계적인 관계를 이룬다. 이 체계적인 관계는 초등학교 체육과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하나의 표준적인 안내선이 된다. 이 표준적인 안내선은 우리에게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질서, 확실성, 효율성, 그리고 통제를 약속한다.

이는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교수-학습의 장에서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교수-학습의 기본 설계도에 따라 수업을 전개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구조주의적 특성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과 교수-학습의 여러 가지 방법들의 의미를 고정화 해 버린다. 그리고 그 의미의 재해석에 대해 전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를 작동 시킨다. 이 점이 초등 체육과 교육의 약과 독, 파르마콘이다. 이 독소를 찾아내는 길이 바로 탈구조주의적 사고인 썸이다. 탈구조주의적 사고의 비판 형식이 해체이다. 해체는 구조주의 사고에 있어서의 불변의 확고한 신념과 합리적 질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밝힌다. 그런데 그것은 구조주의 사고에 대한 일방적인 무시나 제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해체적 관점에서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은 교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정전으로 작용함을 비판해 낸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자이다. 그런데 교사는 그 절대적인 정전을 그대로 따라 가야하는 주변인으로 전락해 버린다. 교사에 의해 선택 되어지고, 구성 되어야할 것이 오히려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교사는 표준화된 방법과 모형에 맞추어 교수-학습을 전개한다. 교수-학습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교수-학습의 주체는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체육과 교수-학습의 주체는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내용과 방법이 된다. 즉, 교사와 학생은 그 기본적인 주축의 세계에서 벗어나며, 그것에 분명하게 도달해야 하는 학습목표를 돌진해 나간다.

이처럼 탈구조주의적 해체는 구조주의 거대담론 속에서 권위적이고 당연시 되어 왔던 것들에 대해 의문시 하며, 한계를 적발하고 그것을 재해석해 낸다. 이는 초등학교에 있어 체육과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운동의 기본적인 기능과 지식, 태도의 습득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신체의 인식 주체로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인격적 성장의 세계로 초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구조주의적 담론의 질서가 끝나는 곳에 다시 시작되는 탈구조주의적 길이 펼쳐진다.

주요어: 교수-학습, 교육과정, 구조주의, 탈구조주의, 해체

## 차 례

|   |           |
|---|-----------|
| 국문 초록 .....                             | i         |
| <b>I. 문제와 문제틀 .....</b>                 | <b>1</b>  |
| 1. 문제제기 .....                           | 1         |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3         |
| <b>II. 탈구조주의 사고로의 이행 .....</b>          | <b>5</b>  |
| 1. 현행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담론의 비판적 이해 .....      | 5         |
| 2.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 사고의 이해 .....             | 8         |
| <b>III.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구조주의적 사고 .....</b> | <b>14</b> |
| 1.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구조주의적 사고 분석 .....     | 15        |
| 2. 초등학교 체육과 교수-학습의 구조주의적 사고 분석 .....    | 18        |
| <b>IV.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탈구조주의적 해체 .....</b> | <b>24</b> |
| 1.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탈구조주의적 해체 .....       | 25        |
| 2. 초등학교 체육과 교수-학습의 탈구조주의적 해체 .....      | 28        |
| <b>V. 논의 및 결론 .....</b>                 | <b>31</b> |
| 참고 문헌 .....                             | 35        |
| ABSTRACT .....                          | 39        |



# I. 문제와 문제들

## 1. 문제 제기

다음과 같은 가상의 에피소드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현 초등학교 체육과 교수-학습 사태의 현주소를 들여다보자.

박중우은 경력 3년제인 초등학교학교 교사이다. 다음 주에 동료 교사들 앞에서 체육 연구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다. 박 교사는 먼저 지도서에서 학습목표와 그와 관련된 학습 활동 등을 살펴 보았다. 또한 인터넷에서도 그 학습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 정리 했다. 그리고 박 교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학습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학습 활동들을 취사선택 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떤 학습 모형을 적용해서 계획해야 할지 고민이다. 연구 수업에서 학습모형을 선택하여 그 단계에 따라 교수-학습을 계획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 교사는 많은 고민 끝에 이해중심게임수업모형을 선택하였다. 교수-학습 계획은 세안 지도안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다. 그리고 본시 지도안에서는 선택한 수업 모형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들을 작성 하고, 활동별로 시량까지 예상하여 작성 하였다.

위의 에피소드는 우리 초등학교 체육과 수업 사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구성한 가상의 내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 에피소드가 허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거의 모든 교사들이 교직 생활에서 꼭 체육과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과와 교수-학습 계획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체육과 수업뿐만 아니라 타 교과에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중요한 초점을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 둔다. 그래서 선택되어지는 학습 활동들도 학습모형에 적합하며, 얼마나 학습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선택되어지고 계획된다.

하나의 수업은 문서상의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즉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지침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단위 수업은 그러한 일반적인 지



침의 테두리 안에서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주어진 절차에 알맞은 단계에 따라 설정된다. 이미 틀은 정해져 있고, 그 틀에 알맞은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데 고민과 관심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 연구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업 참관자들이나 평가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수업을 바라 볼 것인가. 그 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다음의 관점들은 그들이 생각해 보기도 전에 미리 작성된 하나의 종이로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을 것이다. 그것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수업 목표는 명시적으로 제시했는가?’, ‘동기 유발을 도입부에 적절히 했는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가?’, ‘학생의 질문이나 반응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은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확산적 질문인가?’, ‘학생들에게 적절한 활동이나 과제를 부여하는가?’, ‘ICT 자료 등 학생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는가?’, ‘수업 중 시간 배분은 적절하였는가?’ 등이다. 이 질문들은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표준적인 관찰 요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준적인 관찰 목록을 바탕으로 표준적으로 계량화해서 평가한다.

이러한 공식적 기준 - 표준적인 교수-학습 상황, 표준적인 평가 - 은 교사들을 숙련화 시킨다. 그리고 그 숙련된 기술로 초등학교 체육과 수업을 계획하고, 이해하고, 평가한다. 또한 표준적인 요소들은 교사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제공되며, 평가 도구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절차까지도 장착 되도록 한다.

결국 표준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학습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인 셈이다. 이것이 바로 초등학교 체육과 수업의 현주소라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인 기준들이 제시된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소들 속에는 무언가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는다.

## 2. 연구목적과 필요성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느끼면서 되어가는 대로 가르치고 살 것인가? 우리는 참 고약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교사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표준적인 교수전략을 따라야 하는 기능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교사는 자신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자율성을 발휘하여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표준적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사태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의미 부여의 가능성을 닫아 버리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물이 가려는 길은 이렇게 정돈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무엇이 교사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 상황 속에서 당연시 되는 체험들을 구조화 시키는가?’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러한 표준적인 초등학교 체육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사태는 어떠한 진리론에 입각하여 결정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 진리론이 무엇인지를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텍스트와 교수-학습 텍스트 속에서 탐색 해 본다. 그런 다음 그 속에 내축 되어 있는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과정의 이미는 다음과 같이 본다.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가르쳐야 할 계획된 학습이다. 여기서 계획된 학습이란 지속적이며,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치는 자들의 명료한 일반적인 사고이며, 또는 의도된 학습 결과를 간결하게 나열되고 쓰인 문서상의 계획을 의미한다(Shambaugh, N. & Magliaro, S. 2006: 10).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문서상에 제시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을 중심으로 그 속에 내축 되어 있는 실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해체의 길과 만난다. 이때 해체란 기존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직시하며 그것의 문제점을 열어 밝히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담론의 질서의 구성을 말한다(서명석 등, 2008: 3). 다시 말해 현 초등학교체육과 교육의 일발적인 무시나 제거를 의

미하지 않는다. 또한 새로움 만으로의 일방적인 대체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이것은 양극을 합치 시켜서 이중 나선을 통해 현 문제점과 한계점의 극복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금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거대 담론을 파헤치고,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거대 담론에 안착하고 있는지를 찬찬히 되짚어 볼 것이다.

이 연구의 중요 요점만 다시 말해두자면 그것은 이런 것이다.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담론이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 본연의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담론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새로운 담론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 II. 탈구조주의적 사고로의 이행

이 장은 현행 교육과정 담론의 이해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의미를 알아본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의미 해석과 더불어 이것의 구체적인 실현의 장인 교수-학습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러한 작업과 더불어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구조주의적 사고 분석과 탈구조주의적 사고 분석에 앞서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에 대한 특징을 짚어 본다. 이 작업의 순서를 정돈해 보면, 우선 구조주의의 개념과 방법론의 특징을 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탈구조주의적 관점에서의 해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구조주의적 사고는 본 연구에서 탈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해체 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탈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해체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 1. 현행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담론의 비판적 이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라는 물음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것은 ‘교육과정’이라 부를 수 있다. 교육과정의 용어는 우리가 하나의 사물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이듯이, 교육과정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교육을 보는 시각, 인간과 사회를 보는 시각, 즉 사물을 보는 철학적 견해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을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 장은 현행 교육과정 담론의 비판적 이해를 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통적, 개념적-경험적, 재개념적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념을 나열하여 기술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것보다는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가치 있을 것이다.

우선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2008: 7) 총론에서 바라보는 교육과정의 정의를

살펴보자.

교육 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은 의도된 학교 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과 범위로 가르치고 평가하느냐’를 문서로 계획한 교육 설계도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단순한 교육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 내용, 방법이나 운영 방식, 평가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은 하나의 교육 설계도이다. 이것은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에 비유된다.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설계도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교육과정인 셈이다.

다시 집짓기에 교육과정을 견주어 보자. 집짓기 위한 설계도 속에는 집의 구조, 필요한 재료, 비용, 규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밀하게 계획되고, 구상된다. 즉,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본다면 현행 교육과정은 앞에 제시한 집짓기의 설계도에 충분히 비유된다.

현행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청사진(blue print)이다. 즉 교육과정은 교육에 있어 치밀한 계획인 셈이다. 이 속에는 ‘왜 가르쳐야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가르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이 있는 하나의 지침이다.

결국 현행 교육과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알려 주고 있다. 교육과정은 상당히 표준화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하나의 적절한 요소가 투입되면, 이미 정해진 목표에 적절한 결과가 산출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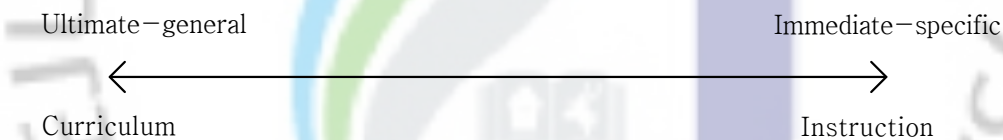
결국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운영된다. 여기서 교사는 그것에 따라 교육 계획하고, 전개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목표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교사는 이 교육과정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교육과정의 하수인과 같은 주변인으로 전락해 버린다. 교사는 이미 정해진



길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만 급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비판적 관점을 교수-학습의 장으로 옮겨보자. 먼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사이를 구분해 보자. 앞에서 밝혔듯이, 교육과정은 표준화 되어 있고,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경험을 선정 조직한 일련의 체계화된 문서이다. 이때 교육과정은 교수-학습의 지침으로 자리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자체가 교수-학습이 되는 못한다. 경험이라는 것은 개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없이는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상호작용으로 특성화 된다. 즉 교수-학습은 지침의 의미 보다는 개인과 환경과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격전의 장이다.

교수-학습은 주어진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활동, 자료, 교수-학습 내용을 의미한다. 다음 제시된 <그림 II-2>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구분 문제를 좀 더 밝혀 보자.



<그림 II-2>주관성의 정도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특징 결정 연속선  
출처: Marsh, C.J., Willis, G. (2006). **Curriculum: Alternative Approaches, Ongoing Issues**. London: Prentice-Hall International. p. 40.

위의 그림에서 보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은 각 양극을 이루고 있다. 위의 연속선 위해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특징이 결정되는 요인은 어느 정도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유연하며, 주관적인 것이다. 교육과정은 일반적이며,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성격을 띤다. 반면 교수-학습은 유연하며, 주관적인 성격을 띤다. 교수-학습은 교사의 개성이나 교수 스타일 그리고 학생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교수-학습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이루어지며,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과정은 교수-학습에 있어서 방향 내지 지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자체가 교수-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지는 못한다.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해석은 교사의 책임에 달렸다. 또한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한 교수-학습이 지닌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진 교과와 교수방법, 이론들을 충실히 적용하여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만 집중한다. 또한 이미 표준화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기법과 방법에만 관심을 갖는다. 결국 교사는 교수-학습을 위한 내용과 목표는 단지 주어진 것을 생각하여, 그것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또한 교사는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일방적으로 전달된 지도 계획, 지도방법 등에 의해 훈육된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정전으로 여겨 버리게 된다. 교사는 이러한 정전에 의해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전개하는 피동적인 존재로 자리하게 된다.

요컨대, 교사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에 있어서 주변인이나 기능인이 아닌 주체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위치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 교사는 무엇에 의해 이렇게 소극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는가? 이는 교사들의 이러한 사고방식, 감정구조, 행동양식을 지배하는 담론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인식론 접근 방식이 구조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방식인 탈구조주의와 그것의 해체의 의미를 살펴본다.

## 2.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 사고의 이해

구조주의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 방식을 가리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 들어가 보자. 구조주의는 인간현상, 사회현상, 문화현상 등을 기술하고 분석하



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과학적 탐색, 즉 구조적-기능적 접근을 시도하는 인식론적 접근 방식이다. 요컨대 구조주의는 하나의 방법론적 특징으로 자리한다. 이에 대해 Lane(1970: 13-14)는 구조주의의 방법론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조주의 독자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우선 그것은, 어떠한 형식을 취하건 간에, 모든 사회현상을 포괄함으로써 사회과학 그 고유 영역뿐만 아니라 인문과학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모든 사회적 활동, 즉 그것이 입고 있는 옷이 되건, 글로 쓰인 책이건, 어떤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친족제도와 결혼제도가건 간에, 사회적 활동의 표현은 공식적인 의미에서 언어를 구성하고 있다는 신념에 의해 성립 가능하다. 따라서 그것이 갖는 규칙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의하고 통제하는 언어와 같은 추상적인 규칙으로 환원될지도 모른다.

위와 같이 구조주의는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지식에 대한 인식 방법 또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조주의의 방법론적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들은 이렇게 정리 된다. 관계성 및 전체성의 강조, 이항대립의 설정, 반인간주의 등이다.

첫째, 구조주의적 방법론은 관계성 및 전체성을 강조한다. 구조주의에 있어 하나의 현상은 어떤 근본 구조(underlying structure)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그러한 근본 구조는 그것의 구성요소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구성 요소들은 하나의 체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 근본구조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개개의 구성 요소는 하나의 독립된 요소가 아니다. 그것들은 각각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하나의 구조 속에서 체계적인 관련성을 맺으며, 하나의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상호(1998: 859)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구조주의자들이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 속의 요소가 아니고, 그들 요소를 연결시켜 통합하는 관계의 복잡한 개념 망이다. 전체와 그것을 이루고 있는 부분, 그리고 부분들과 부분들의 관계들이 서로의 특성을 규정하는 어떠한 상호의존적 이고 내적인 관계와 통합성이 구조의 특성이다.

이러한 구조주의 전체성과 관계성은 하나의 폐쇄성을 상징한다. 구조주의는 하나의 집합체인 구조와 그 구조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만약 어떤 구조가 그 구성 요소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면, 구조가 존속하는 한, 그 구조가 지닌 규칙은 그것의 구성 요소를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구조는, 그들간의 관계가 어떤 행위는 허용하고 어떤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폐쇄성을 지닌다.

둘째, 구조주의 방법론은 이항대립 또는 이항구분을 설정한다. 이것은 어떤 단어의 의미는 관계와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구조주의에서 있어서 의미의 형성은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닌 전체성, 즉 그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의 본질이 아닌 다른 요소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 가치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Seung(1982: 10)의 생각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항구분은 구분(차별화), 다시 말해서 어떤 자질이나 속성을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을 구분하거나, 혹은 어떤 유목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논리적 기제이다. 이것은 모든 주장이나 부정(否定)을 뒷받침한다. 이보다 더 강력한 논리적 원칙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의미가 구분되는 과정인 셈이다. 이러한 구분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높게 평가되거나, 더 본질적인 것은 앞에 진술되며, 그렇지 않은 것은 뒤에 진술된다. 결국 이는 단순히 상대적 관계를 통한 개념적 구분 차원을 넘어서 어느 한 쪽 만을 높게 평가하는 범주에 넣게 되고, 그 나머지 범주는 주변적이 것으로 취급해 버린다.

셋째, 구조주의는 주체를 탈 중심화 한다. 이는 앞에서 밝힌 전체성과 관계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구조주의는 주체 보다는 구조를 우선한다. 즉, 구조주의는 개인이 아닌 관계를 강조한다. 이는 주체를 탈 중심화 한다. 그래서 하나의 교수-학습의 중심의 중심적 의미는 교사와 학생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는 바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말, 행위간의 관계의 의해 결정된다. 즉 의미는 개인의 주체가 아닌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상호(1998: 857)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것의 '구조'를 연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개인이 쉽게 그 변화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혹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미미한 것에 불과한 어떠한 것을 구조로 보는 경향이 구조주의 출범 초기부터 방법적 전통으로 형성되어 왔다. 구조주의자들은 실존적인 인격의 엄밀성 대신에 무인격성을, 자유의 윤리성 대신에 필연적인 인식, 정신적인 가치의 현존 대신에 물질적 체계의 법칙을, 의식 대신에 어두운 심연에 작용하는 무의식의 법칙을, 개별적인 천재들의 소산 대신에 집단의 소산을, 주체의 자각대신에 주체와 인간의 소멸을, 개인 대신에 집단의 힘을 내세운다. ... 구조주의자들은 주체의 절대적 위치를 해체시키고 있다. 그러한 의미의 자유롭고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은 없다는 것이다. 주체는 존재의 근원 혹은 기원이 아니라, 외재하는 사회체제나 타자와의 동일시의 과정이나 언어를 통해 형성된 결과물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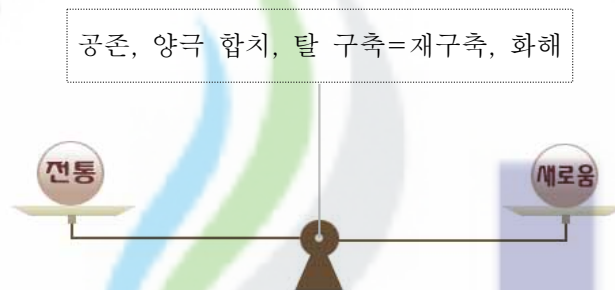
구조주의는 철저히 개인을 의미 중심에 두는 것을 거부한다. 구조주의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구성요소와 구조간의 관계이다. 따라서 구조주의에 있어 구조는 하나의 자율적인 메커니즘을 이루며, 하나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체계를 형성해 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구조주의 방법론은 전체성과 관계성의 강조, 주체의 탈 중심화, 이항대립의 설정 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반역사주의, 이데올로기적 중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구조주의 방법론의 특징에 맞추어 논의 전개해 가고자 한다.

당대의 지배적인 삶의 한 가지 방식인 구조주의는 20세기 인식론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다. 그것은 사상(事象)에 있어서의 질서, 조직, 그리고 확실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구조주의적 사고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의 비판에 대해 면역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주의 사고에 대한 비판이 바로 탈구조주의라는 사고방식이다. 탈구조주의는 구조주의 특징적인 아이디어인 전체성과 관계성의 강조, 반인간주의적 아이디어, 주체의 탈 중심화 문제를 비판한다. 구조주의는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들은 개인을 의미의 중심에서 탈락시켜 버렸다. 그로 인해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오히려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주체는 구조의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조의 중심이 될 수 없다. 탈구조주의는 주체의 복권을 통하여 주체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정된 구조(초월적 기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다

원적 구조를 탐색한다. 즉 탈구조주의는 구조주의 방법론이 구조의 자족성과 공시성을 강조함으로써 주체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특정 시점에서 사회구조를 미리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변동의 역사적 과정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김봉석, 2000). 탈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가정과 그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전체성과 관계성, 주체의 탈 중심화 등의 논증들을 공격한다. 해체(解體, deconstruction)는 탈구조주의적 비판 형식이다. 그럼 탈구조주의적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체에 대한 개념을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그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림 II-2] 해체의 개념적 특성

위의 그림에 포함된 몇 가지 개념적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탈구조주의적 해체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드러내 보고자 한다. 우선, 위의 그림에 대해서 살펴 보자. 이것은 전통과 새로움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전통과 새로움은 양극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두 양극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 균형을 이루는 힘은 바로 공존, 양극 합치, 탈 구축=재구축, 화해이다. 이것들의 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해체의 개념적 특성을 대표한다. 다시 말해 이것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머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두 항은 언제나 공존한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머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제거하고 대체하지도 않는다. 요컨대 탈구조주의적 해체란 구조주의를 비판의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것의 사고에 있어서의 불변의 확고한 신념과 합리적 질서에 대해 문제점과 한계점을 밝힌다. 동시에 전통과 새

로움의 양극을 합치시켜서 이중 나선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탈구조주의적 해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전개해 나간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구조주의적 사고를 분석한다.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구조주의적 사고를 해체를 수행한다.





### Ⅲ.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구조주의적 사고

먼저 담론을 살펴보자. 담론은 언급되고 글로 쓰인 것들을 지칭한다. 교육과 관련된 담론은 초등학교학교 교실 및 수업에 관한 연구결과에 언급되어진 것에서부터 교과서, 전문학술지의 연구에 쓰인 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임의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것을 형성하고 규제하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이다(Wittgenstein, 1953).

규칙이란 규칙 군에 의해 정의되는 특정 상황에 있어 어떠한 행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를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의 의미는 그 시대에 나타난 하나의 통합된 관심과 가치를 의미한다. 하나의 통합된 관심과 가치,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이다.

이데올로기의 내용은 진리이거나 타당한 것으로 알려진 신념과 해석이다(Bernstein, 1976: 108). 이데올로기는 담론의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지배질서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세계관 응축하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에피스테메라고 부른다. 결국 에피스테메는 당시대가 생각하는 진리이거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해석의 담론 질서를 형성해 낸다.

따라서 담론과 에피스테메는 시대의 산물이며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의 역사와 정신이 녹아 있는 시대의 거울이다(서명석, 2008: 23).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다양한 종류의 담론의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개인들에게 통제를 가하는 장치로 역할 한다(Ball, 1990: 2-3).

그런데 이 에피스테메는 당 시대의 담론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서열화 되도록 배치하는 힘의 질서를 구축하는 구조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김석, 2007: 63-64). 이는 일종의 구조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럼 구조주의란 무엇인가? 구조주의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구조의 개념을 살펴보자. 구조라는 개념은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정태적인 뼈대를 의미한다(김종우, 1997:13). 구조주의는 그러한 구조를 탐구하는 학문의 한 방법론이다. Hawkes(1977: 18)는 구조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구조주의]는 어떤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본질은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구성요소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어떤 실체나 경험이 갖고 있는 완전한 의미는 그것이 구조로 통합되어야만 제대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조주의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본질 보다는 그것의 배후 구조를 찾아내고, 그 구조를 통해 체제의 구성 요소들 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심을 둔다. 즉, 이것은 개개의 구성요소가 갖는 특수성 보다 그들간의 체계적인 관련성 속에서 의미를 찾는데 보다 관심이 크다.

결국, 구조주의에 있어서 개인은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중심에는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가 자리 잡게 된다. 또한 구조주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의 하나의 텍스트로 이해하고, 그 텍스트를 지배하는 구조를 찾아내고, 그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기호들 간의 의미로 설명한다. 교육도 해석되어야 할 텍스트 내적 기호 작용 또는 암호이다. 그런데 텍스트는 담론 적이고 담론에 기여한다(Benveniste, 1971). 교육은 해석되어야 할 텍스트 또는 담론의 질서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 역시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함과 동시에 특정한 담론 질서를 가진다. 당대의 특정한 담론 질서는 에피스테메에 의해 형성됨을 앞에서 밝혔듯이,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 역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에피스테메 놓인다. 다시 말해 구조주의의 질서 하에 놓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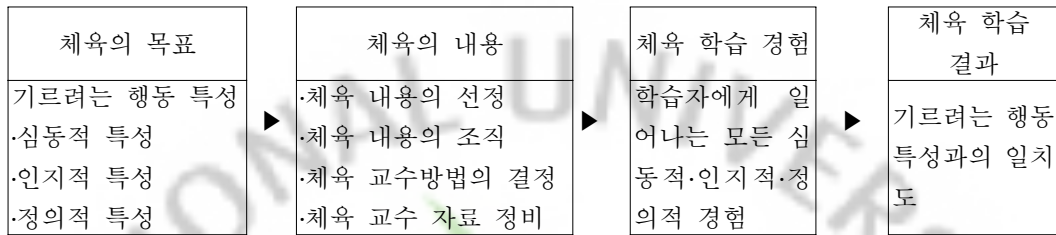
그렇다면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은 어떠한 양태로 구조의의가 침전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 초등학교 체육과의 교육과정 텍스트 과 교수-학습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그것들의 속에 안착하고 있는 구조주의적 특성을 찾아내보고자 한다.

## 1.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구조주의적 사고 분석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는 교육목표,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활동, 평가의 4가지 요소로 이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구성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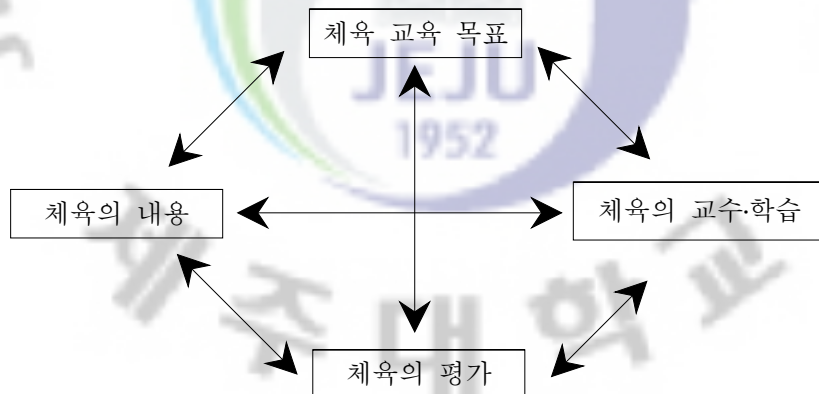
소는 체육과 교육의 목표, 체육과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체육과 교육의 교수-학습활동, 체육과 교육의 평가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3] 체육과 교육과정 구성 요소

출처: 한형주(2004), **초등학교체육 교수법**, 충북: 협신사. p. 34.

위의 네 가지 체육과 교육과정 구성 요소는 하나의 체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은 독립적인 의미 보다는 하나의 체제 즉,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4] 체육과 교육과정 구성 요소와 관계

출처: 한형주(2004), **초등학교체육 교수법**, 충북: 협신사. p. 34.

체육과 교육과정의 구성 절차는 체육과의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시작된다. 설정된 체육과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육과 교육내용을 선정·조직한다. 그 다음 선정·조직된 체육과 교육내용을 단원별로 구성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을 걸쳐, 그 결과를 평가한다.

각 단계는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각각의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 양 방향의 화살표는 역동성을 나타낸다. 예컨대 목표에서 시작해서 체육과의 내용 쪽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목표가 체육과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의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처럼 체육과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는 결과를 평가하며 각 단계로 피드백 하여 각 단계의 활동을 수정·보완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Tyler(1949: 1)는 교육과정 계획에 있어서 교육과정 조직을 위한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원리는 교육과정과 수업 계획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네 개의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는 어떤 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2.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학습 경험은 어떻게 선정될 수 있는가?
3. 어떻게 이러한 학습 경험이 효과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가?
4. 이러한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가?

Tyler는 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가 제시한 네 가지 질문은 교육적 사고에 대한 구조적 가정을 강요한다(Cherryholmes 1988: 49-50). 예컨대, 학습 목표는 그 자체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으나 조직된 교육내용과 방법 그리고 평가의 구조 하에서는 체계적인 수업의 일부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갖기 어려운 평가 도구도 학습목표와 교육내용이라는 맥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은 그것들과의 관계와 차별성에 의해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Tyler는 교육과정 계획이 하나의 부단한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교육과정은 시

행되고, 그 결과가 평가된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그것이 갖는 부적합성을 규명하여,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교육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 과정은 재순환되어야 하고 오류는 수정되어야 한다.

체육과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와 Tyler가 제시한 교육과정 계획에 대한 네 가지의 질문은 하나의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로써 상호 관계 형성 하며,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의 각 구성요소의 단위나 부분이 아닌 전체를 강조한다. 이러한 전체성은 교육과정의 구성요소가 갖는 특수성 보다 그들간의 체계적인 관련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체육과 교육과정의 의미는 목표, 내용, 교수-학습, 평가 등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각 단계는 그것들이 소속한 체제로부터 분리될 경우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된다.

요컨대 체육과 교육과정은 그 구성 요소들 간의 전체성과 관계성 속에서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목표 달성과 질서, 조직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초등학교 체육과 교수-학습의 구조주의적 사고 분석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제공할 학습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성과는 교수-학습이라는 구체적인 수업 활동을 통해서 구현된다. 학교 교육이 목표로 하는 학습자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는 주로 교수-학습을 통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의 과정은 학교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수-학습 역시 다양한 교육 담론을 형성한다. 이러한 교육 담론들은 거대한 사회문화적 지식 체계의 다른 표현인 에피스테메의 질서 하에 놓이게 된다. 그로 인해 교수-학습이란 당대의 담론을 거중 조정하는 구조주의 산물이 된다.

다음에 제시될 교수-학습 지도안은 구조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전형적

인 샘플이 될 것이다. 이 텍스트는 서귀포시 ○○초등학교학교 5-6학년 체육을 전담 맡고 있는 ○○○교사가 선도교사(good teacher)로 지정받기 위해 행한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표 III-1] 수업의 기본 정보

|         |   |           |      |      |             |
|---------|---|-----------|------|------|-------------|
| 대상      | 5학년 1반  | 과목        | 체육   | 수업자  | ○○○         |
| 교육과정 영역 | 게임활동  | 교육과정 세부영역 | 구기활동 | 운동기능 | 공던지기<br>공받기 |
| 본시주제    | 패스의 기능과 전략 익히기  |           |      | 학습모형 | 협동학습        |
| 학습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를 피해 공을 주고 받을 수 있다.</li> <li>○ 게임을 통해 어떻게 공을 주고, 받는지 이해한다.</li> <li>○ 규칙을 지키며 협동하는 태도를 지닌다.</li> </ul> |           |      |      |             |


[표 III-2] 본시 교수-학습과정안

| 단계<br>(시간)      | 학습흐름   | 교수학습 활동  |   | 자료(□) 및<br>유의점(○)   |
|-----------------|--|--|---|---|
|                 |  | 교사 활동  | 아동 활동   |   |
| 도입<br>활동<br>(5) | ○ 준비<br>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몸 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몸 풀기 동작 후, 농구공을 이용하여 농구형 게임에 많이 사용되는 허리, 어깨 등의 관절을 충분히 풀어준다.</li> </ul> </li> <li>◆ 건강상태 확인하기</li> <li>◆ 학습주제 도입하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 풀기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구공을 이용하여 모듬 친구들과 함께 몸 풀기를 한다.</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픈 학생은 참관하도록 한다.</li> <li>□ 농구공 10개, 공바구니 이젤, 사진 자료</li> </ul> |
|                 | ○ 건강<br>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활동사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li> <li>-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죠?</li> <li>- 지난 시간에 농구하면서 혹시 안 좋았던 점이 있었나요?</li> <li>- 그랬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모듬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왔는데 그게 바로 공부할 문제예요! 누가 한번 선생님 마음을 읽어서 공부할 문제를 맞춰볼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주제에 흥미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얼굴이 나온 사진 자료에 집중한다.</li> <li>- 지난 시간에 농구했던 사진요</li> <li>- 남자들만 했어요. 잘하는 친구들만 했어요.</li> </ul> </li> </ul> |   |
|                 | ○ 동기<br>유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문제를 찾는다.</li> </ul>   |   |
|                 | ○ 공부할<br>문제<br>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문제 제시하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문제 확인하기</li> </ul>   |   |
|                 | <b>협동 패스 게임을 하여 보자!</b>  |  |   |   |
| ○ 학습<br>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활동 안내하기</li> <li>【활동 1】 협동 패스게임 방법 알기</li> <li>【활동 2】 모듬 대항 협동 패스게임 하기</li> </ul>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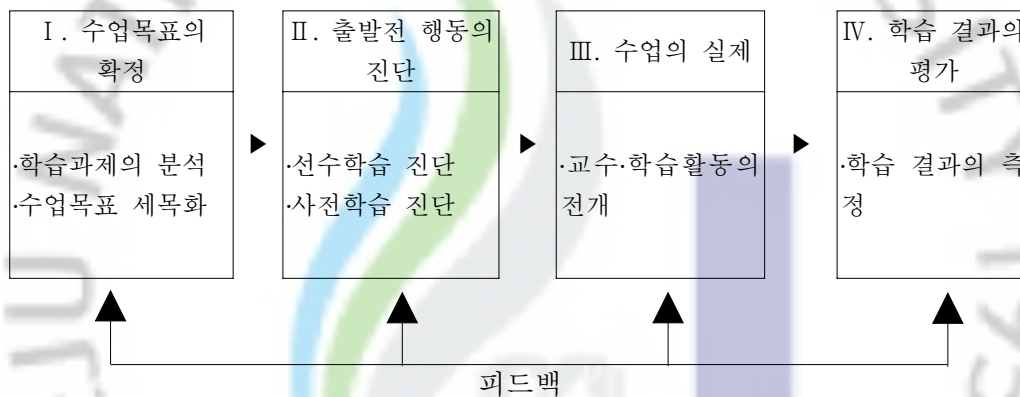
| 단계<br>(시간)       | 학습흐름        | 교수학습 활동   |      | 자료(□) 및<br>유의점(○)  |
|------------------|-------------|---|------|--|
|                  |             | 교사활동  | 아동활동 |  |
| 이해<br>하기<br>(5)  | ○ 학습<br>활동1 | <b>■ 활동1. 협동 패스게임 방법 알기</b><br><b>◆ 게임방법 설명하기</b> <b>◆ 게임방법 이해하기</b>  |      | □ 게임 설명 보드판<br><br>□ 반칙 설명을 위한 시험조 어린이 2명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인 1모듬으로 모듬을 구성하고 2모듬이 모듬 대항으로 한 경기장을 이용한다.</li> <li>• 가로6M, 세로5M의 직사각형 경기장을 4개로 나누고 각 칸에 서로 다른 모듬원이 각각 1명씩 들어간다.</li> <li>• 한 사람씩 서로 공 이어주기를 하여 처음 공을 이어준 사람에게 공을 빼앗기지 않고 패스가 다시 이어지면 1점을 얻는 게임이다.</li> </ul>   |      |  |
|                  |             | <b>◆ 주요 반칙 설명하기</b> <b>◆ 주요 반칙 이해하기</b>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비팀에 의해 터치 아웃된 경우 그 칸에서 계속 게임이 진행되고 공격자 실수로 터치 아웃된 경우는 공격권이 상대팀에게 넘어간다.</li> <li>• 공을 잡고 있는 친구의 몸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며 손을 대어서 공을 빼앗았을 경우 다음 사람에게 공격 팀의 패스가 성공한 것으로 인정한다.</li> <li>• 공격수가 선을 밟거나 선을 넘어가면 공격권이 상대팀에게 넘어가고 수비수가 선을 밟거나 선을 넘어서 공을 빼앗으면 공격 팀의 패스가 성공한 것으로 인정한다.</li> </ul>   |      |  |
| 게임<br>하기<br>(24) | ○ 학습<br>활동2 | <b>■ 활동2. 모듬대항 협동 패스게임</b><br><b>◆ 게임 진행하기</b> <b>◆ 게임 하기</b>   |      | ○ 특별히 특수 아동은 이 모듬은 게임할 때 그 아동에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br>○ 이때 약속된 호각 신호를 사용한다.<br>1회: 시작/이동<br>2회: 게임 종료<br>3회: 종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수 모듬을 파란색 조끼를, 짝수 모듬은 빨간색 조끼를 입고 아래의 경기장 배치처럼 배치한다.</li> <li>• 한 경기 시간은 5분(이동 시간 포함) 으로 한다.</li> <li>• 선생님의 호각 신호에 경기를 멈추고 홀수 모듬 어린이들이 다음 경기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한다.</li> <li>• 짝수 모듬은 제자리에 있고 홀수 모듬이 아래의 배치표처럼 이동하며 교사의 호각 신호에 맞춰 다음 경기를 진행한다.</li> <li>• 모듬별로 두 번의 경기가 끝난 뒤에 <b>작전타임</b>을 2분간 갖는다. 작전타임 동안 두 번의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두 번의 경기에서 승리하기위한 패스전략을 의논한다.</li> </ul> |      |  |



| 단계<br>(시간) | 학습흐름  | 교수학습 활동  |  | 자료(□) 및<br>유의점(○) |
|------------|---|--|--|-------------------|
|            |   | 교사 활동  | 이동 활동  |                   |
| 정리<br>(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 활동</li> <li>○ 평가 안내</li> <li>○ 정리 운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 짝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떻게 하여야 게임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는지? 에 대해 옆 짝과 이야기 나누도록 지도한다.</li> <li>• 옆 친구에게 들은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li> </ul> </li> <li>• 학생들이 이야기한 전략들을 정리한다.</li> <li>◆ 평가방법 안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에서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고 반장이 모아서 선생님에게 가지고 오도록 안내한다.</li> </ul> </li> <li>◆ 정리 운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시간에 많이 사용한 팔과 허리 근육을 잘 풀어준다.</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 짝 나누기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에서 어떻게 하여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는지 친구와 이야기 하며 전략을 생각한다.</li> <li>• 친구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발표 한다.</li> <li>- 공간을 잘 이용해야 해요</li> <li>- 공을 받기 위해 계속 움직여야 해요</li> <li>- 친구와 미리 작전을 잘 짜야 해요!</li> </ul> </li> <li>◆ 평가방법 이해하기</li> <li>◆ 정리 운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 운동을 하고 교실에서 자기 평가서를 작성한다.</li> </ul> </li> </ul> | 자기평가서             |

| 핵심 판서  | 학습 자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할 문제</li> <li>- 협동 패스 게임을 하여 보자!</li> <li>◆ 학습 활동</li> <li>【활동 1】 협동 패스게임 방법 알기</li> <li>【활동 2】 모둠 대항 협동 패스게임 하기</li> <li>◆ 게임 방법 설명 보드</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5%; height: 100%;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10%; left: 10%;">○</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60%; left: 30%;">■</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5%; height: 100%;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10%; left: 40%;">■</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60%; left: 80%;">○</div>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margin-top: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5%; height: 100%;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60%; left: 10%;">○</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90%; left: 40%;">■</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5%; height: 100%;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60%; left: 40%;">○</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90%; left: 80%;">■</div> </div> </div> | <p>가. 동기유발 자료</p> <p>전시에 게임 하던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p>  |

교수-학습은 학습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뼈대 내지 프레임이다. 그래서 교수-학습의 과정을 표준화된 모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많았다. 제시된 교수-학습 지도안 역시 그러한 노력의 건축물로 보아도 별 무리를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교수-학습 모형은 교수-학습 과정이 어떤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요소들은 어떠한 관계 속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은 구조화 된다. 여기에 구조화된 교수-학습 과정 모형을 하나 제시해 둔다.



[그림 III-5] Glaser의 교수-학습의 과정

출처: 변영계(2004),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 서울: 학지사. p. 36.

이러한 교수-학습 모형은 표준화된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된다. 여기서 이론이란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서로 유사성과 관련성이 높은 두 개 이상의 법칙이나 원리가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의 이론은 교육의 다른-실천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된 진술과, “맥락 C에서 X는 Y로 간주한다.”(Searle, 1969: 52)라는 식의 제도화된 현상이 된다. Culler(1973: 21-22)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구조주의는 우선, 인간의 행동이나 그 결과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성립시키는 지배적 관습 체제가 있어야한 하고, 행동은 일련의 제도적 관습과 관련되어야만



유의미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두 개의 포스트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사이로 공을 찬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의 제도화된 프레임웍에서만 고율로 계산할 수 있다.

제도화 된 이론(프레임)은 교수-학습에 있어서 기본 설계도로 작용하며, 그 범위 안에서 교수-학습이 계획되고 전개된다. 교수-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제도화된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인 질서로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 이쯤에서 정리해 보자. 교수-학습 과정은 제도화된 이론에 의해 계획, 실행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체계 속에서 구성요소들 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지도안 분석을 통해 그 속에 내축되어 있는 구조주의적 사고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두 개의 분석 대상은 전체성, 관계성, 표준화된 이론의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조주의적 사고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구조주의는 교육에 있어서 질서, 조직, 확실성뿐만 아니라 책무성, 효율성, 그리고 통제를 약속한다. 구조주의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 표준화된 교육 과정, 체제적 교수와 상통한다. 이러한 구조주의적 가정이 인식되지 않는 한, 그것은 비판에 대해 면역 되어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탈구조주의적 해체를 다루고자 하며, 과연 구조주의가 그것이 약속한 바를 이행해 왔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IV.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탈구조주의적 해체

당대 담론적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지배적 질서는 구조주의이다. 이것은 하나의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을 결정하며, 다른 부분에 의해 정의되기도 하는 식의 전반적인 과정과 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사고이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초등학교체육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텍스트와 담론은 구조주의적 가정에 근거한 것처럼 보인다.

탈구조주의적 사고는 구조주의자의 가정과 그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논증들로 인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공격한다. Jonathan Culler(1984: 22)는 다음과 같이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를 대비 시킨다.

가장 단순한 시각에서 구조주의는 언어학을 모델로 삼고, 문학 작품의 형식과 의미를 설명하는 “문법”-체제를 형성하는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의 조합가능성-을 전개하려고 한다. 반면에 탈구조주의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노력이 텍스트 그 자체의 작용에 의해 무산되는지를 탐구한다. 구조주의자들은 체계적인 지식이 성립가능하다고 확신하는 반면, 탈구조주의자들은 이러한 지식이 성립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탈구조주의는 구조주의 체계적인 지식의 성립, 초월적 의미론적 의미에 대해 해명한다. 그렇다면 그것의 공격 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해체(解體; deconstruction)이다. 이것은 탈구조주의 비판의 한 형식이다. 그럼 해체(解體; deconstruction)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 마주하는 두 항의 평화적 공존 la coexistence pacifique d'un vis-a-vis’이다(이광래, 2007: 142). 탈구조주의 논의에서 해체의 의미는 “사고에 있어서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합리적 질서의 보장에 의해 현혹되어 버린 구조주의를 도그마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로부터 일깨우는 작업”을 가리킨다(Culler, 1984: 24). 즉 구조주의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밝히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담론 질서의 구상을 말한다.

이 장에서 해체의 전략을 통해 초등학교 체육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텍스트에 대한 탈구조적 해체를 시도하고자 한다.

## 1.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탈구조주의적 해체

일반적으로 문서 속에 담긴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교육목표들의 체계와 배워야 할 교육내용들의 범위와 위계로 구성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학습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 교육평가, 기관운영의 일반적 지침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역시 하나의 문서 속에 담긴 교육과정이며, 동시에 하나의 텍스트로써 담론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이자, 지침으로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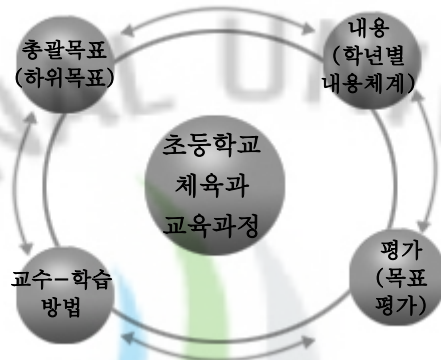
그런데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은 앞에서 보았듯이 당대의 담론의 질서를 거중조정하는 에피스테메의 질서 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은 구조주의적 특성이 내측 되어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구조주의적 특성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 떠나 보자.

우선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구조화 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며, 논리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체육 교사용 지도서(2008: 6)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체육과 교육 과정은 학교의 체육과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학습목표를 어떠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그 학습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 과정은 하나의 길인 셈이다. 그 길은 학습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따라 학생들을 이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 이끌어 가는 것은 주체는 무엇인가. 교사와 학생인가. 아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구성요소이다. 다음의 그림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이 교사와 학생이 배제한 채 얼마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적실하게 보여준다.



[그림 IV-6]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구성요소

위의 그림에서 보면,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총괄목표 달성하도록 구조화 된다. 교사와 학생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 없다. 교사와 학생은 그것을 따라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 이것은 또한 교사를 틀-가두기의 함정으로 몰아 놓고 있다.

결국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 과정의 의미는 교사와 학생이 아닌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교사들과 학생들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설계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으며, 의미와 교육과정의 중심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의미는 목표, 내용과 방법, 그리고 평가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이 지닌 구조주의적 특성의 어려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은 또한 하나의 텍스트로 자리 한다. 그것들은 언어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텍스트와 담론들을 투사할 때 우리는 곧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 텍스트는 구조적 특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텍스트는 끊임없이 구조화의 과정이 된다(Terry, 1983: 138-139). 이 구조화의 과정

은 이원적 과정으로 작용한다. 하나는 개인이 자신의 선택과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과정과 제도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다른 하나는 역으로 사회적 과정과 제도가 개인의 선택과 행위 기회를 박탈하고 제공하는 과정으로 형성된다(Giddens, 1979: 66-73). 담론은 하나의 교육 제도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담론은 다시 그 제도 속에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냈다. Giddens가 말한 것처럼 전자의 구조화 과정으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이 형성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구조화 과정이 후자의 형태라는 것이 문제다.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은 교사에게 하나의 절대적인 성전으로 자리한다. 그래서 그것은 교사를 아무런 의미 해석 없이 초등학교 체육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즉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제도는 그 의미를 고정화 해 버리는 오류를 범한다. 이 오류로 인해 교사는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주체이자 그 실현의 중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그것의 주변인으로 남게 된다. 교사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이다. 교사에 의해 선택되어지고, 구성되어야 할 교육과정이 오히려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정리해 보자. 당대의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은 구조주의가 낳은 하나의 부산물이지만 그것이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절대적인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착각에 불과하다. 기존의 관념에 익숙하지 않을 때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새로운 시각은 기존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여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해체의 길인 셈이다.



## 2. 초등학교 체육과 교수-학습의 탈구조주의적 해체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이 구체적인 교육활동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정황 지점은 교수-학습 장치이다. 앞에서 그에 대한 예로 선도교사 수업 사태에 사용된 초등학교 체육과 교수-학습 담론을 제시하고, 이 시스템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주의적 특성을 관찰 하였다.

실제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에서 교수-학습 장치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이 구체적으로 현시하는 격전장이면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수업 상황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담론구조이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이것은 교사가 아이들에게 치밀한 계획 아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체계적인 지표이며 동시에 절대불변의 진리-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목표 기능, 지식, 태도-를 운반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지도안을 살펴보면, 이 장치가 얼마나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우선, 지도안에서 일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자. 그것은 도입-전개-정리의 순으로 조직화 된다. 도입 단계에서는 동기유발, 준비운동, 학습목표 제시, 학습 활동 안내가 제시된다. 전개 단계에서는 게임의 이해, 게임 전략인지, 게임 수행의 흐름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평가 및 정리 운동으로 수업을 계획했다. 또한 단계별로 시량까지 확인해서 디자인 해 놓는다. 이 지도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 정해진 절차와 단계가 그 수업의 학습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는가 하는데 있다. 즉 이 지도안은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주형(鑄型)인 셈이 된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은 던져 보자. 과연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되는 교수-학습 활동의 구조적 체제의 주체는 무엇인가. 아마도 교사와 학생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제시된 학습목표이다. 교수-학습 사태는 교육과정에서 이미 결정된 의미와 구조에 의해 가르쳐지고, 통제되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은 교수-학습의 단계와 단계간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개인을 주변에 두는 든다.

즉 개인이 아닌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주체를 탈중심화한다.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교수-학습의 사태는 교사나 학생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바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이미 정해진 생각과 말, 행위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의미는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아닌 구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교수-학습이 지닌 비인간적 측면일지 모른다. 문제가 바로 이 점에 있다. 다시 말하면, 교수-학습 활동은 이미 정형화, 표준화된 하나의 틀로 자리 한다. 또한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제시된 학습 목표를 위한 하나의 시각(theoria)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을 단위 시간 40분 동안 정해진 기능, 지식, 태도의 목표를 달성을 위해 기본 기능을 숙련 시키고, 반복 연습, 게임을 진행하는 데에 매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구조는 자칫하면 일단 확고하게 정해진 목표 속으로 “그대로 돌진해 들어간다(driven through)”. 교사는 운전기사(흔히 다른 사람의 차)가 된다. 그리고 학생은 기껏해야 승객이 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남에 의해 조종되는 대상이 된다(김복영, 1997: 44).

여기 교사는 이미 정형화된 지도안이라는 차의 운전기사가 된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차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까에 집중하게 된다. 여기서 아이들은 오로지 목표를 달성을 위한 차에 탑승하여 돌진하는 구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구조는 자칫 잘못하면 교사가 아이들을 오로지 목표를 향하여 집단-심문해 들어가는 힘의 행사로 미끄러질 수 있다(서명석, 2008: 53).

그렇다면 이러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교수-학습의 담론 규칙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에 대해 푸코(1972: 117)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주어진 시기를 이루는 시공간에서 결정되는 익명의 역사적 규칙들이며, 주어진 사회, 역사, 지리 혹은 언어학적 영역을 위한 것으로서, 선언적(enunciative)기능을 발휘하는 조건이 된다.



어떤 담론이 갖는 규칙들은 무엇이 언급되고 무엇이 언급되지 않는지를 결정한다. 그것들은 무엇인 진리이고 따라야 할 지침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그것들은 분명한 저자도 없고, 분명한 시작도 없다는 점에서 익명성을 지닌다. 이것이 바로 Foucault가 말하는 익명의 화자이다. 또한 Michael Shapiro(1981: 141)의 주장과 같이 “주체에 대한 푸코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진술한다는 식의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진술이 사람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교사는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교수-학습 체제가 절대 진리에 기초한 것으로 믿고 싶어 한다. 당대의 지배적인 교수-학습 담론들은 무엇이 진리이고 중요하고 적절한지, 무엇이 언급되고 언급되지 않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지면을 통하여 살펴 본대로 교수-학습 담론의 문제점을 밝혀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대의 담론 질서의 특성인 표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표준화는 또 동일화로 이끌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의 틀로 가두는 오류를 저지른다. 말하자면, “대상을 획일화하는 이데올로기는 차이의 이질성을 동질화 한다. 그것은 지배의 담론이다(도정일 외, 2004: 211).”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도 제도화된 교수-학습 지도안을 짜서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하고 있지만, 당대의 거대담론의 희생물로 남는다. 이제 푸코 식으로 끝내자. 담론은 제도를 만들고 제도는 인간을 규격화로 가둔다(서명석, 2008: 25).

## V. 논의 및 결론

한 시대의 패러다임은 중요하다. 그것이 그 안에서 존재하는 삶을 정의하고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규정짓고, 통제하기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 역시 당대의 패러다임 즉, 구조주의 패러다임이 구축한 토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패러다임은 분명한 시작과 끝에 역점을 두고 선형적이고 계열적이며 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질서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패러다임 속에서 간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전개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미리 정해지고 선형적인 달려할 코스의 주자가 되는 셈이다. 이를 쉽게 표현해 보면, 이미 정해진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이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의 범위 안에서 비판적인 사고 없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의미와 가치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결국,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지배적인 담론은 ‘왜 초등 체육과 교육을 가르쳐야 하는가?’, ‘내가 가르치는 방식과 내용이 초등 체육과 교육의 설정목적과 부합하는가?’ 등의 사고방식 및 행동 양식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구조주의는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에 있어서 질서, 조직, 확실성뿐만 아니라 책무성, 효율성, 그리고 통제를 약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우리에게 하여금 의미를 고정화 해 버리고, 의미의 재해석에 대해 전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를 작동시키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약과 독, 파르마콘(pharmakon)이다. 이것은 양가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약이면서 동시에 독이고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를 뜻하는 메타포이다. 문제의 초점은 그것이 지닌 독성이다.

그것을 여기서 더 주목해 보자.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 이것을 교수-학습 과정이라 한다. 이 때 교수-학습 과정은 이미 정해진 초등학교 체육과 교

육과정을 토대로 조직되어 있는 교과와 내용을 가르친다. 교수-학습은 교육과정의 세계를 토대로 체계적이면서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은 그 기본적인 주축의 세계에서 벗어나며, 그것에 분명하게 도달해야 하는 학습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따라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구조주의는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자체를 하나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인 집합체로 환원하여 제시한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정전화(正典化) 시켜놓고,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세계를 그것으로 고정화 해 버린다. 하지만 교사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모든 행위가 이미 정해진 틀을 벗어나지 않기에 교사를 표준화 된 틀의 종속물로 전락시켜 버린다.

또한 교사는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착각해 버려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사고도 없이 그대로 미리 정해진 공간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버린다. 마치 푸코가 제안한 사목(司牧)적 권력(pastoral power)과 같다. 이때 사목(司牧)적 권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여기서 패스터(pastor)는 목동을 의미한다. 목동은 날이 밝으면 양떼들을 푸른 초원으로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날이 어두워지면 양떼들이 우리로 안전하게 데려온다. 이때 목동이 행하는 힘이 사목적 권력이다(서명석 2008: 48). 위에서 제시한 초등학교체육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교사는 여기에서 목동에 해당한다.

교사는 아이들을 이미 주어진 학습목표에 맞추며, 정해진 궤도(on-track)에 올려놓고, 오로지 학습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힘을 행사한다. 이때 교사가 행사하는 힘 역시 사목(司牧)적 권력(pastoral power)이 된다. 또한 그러한 힘의 배경에는 어김없이 정형화·표준화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구조주의적 특성을 내축 하고 있는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이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독성이다.

이제 정리해 보자. 구조주의는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의미를 중심화 하고, 조직하고, 고착시키고, 그에 정합성을 부여 하였다. 이러한 의미 축에서, 교수-학습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자리에 교사를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주체를 저버린 그것의 포로로 전락 시켜 버렸다. 이러한 작금의 현상을 온전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모습이라 부를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구조적 특성을 넘어 탈구조주의에 조응하는 이론과 실천을 모색할 때 이다. 여기서 푸코의 생각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나는 늘 꼭 《당연하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 모든 경우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파괴하는 지식인으로 있고 싶다. 그러한 지식인은 현재의 다양한 타성이나 강제 의 한복판에 서서 다양한 돌파구를 끝까지 살핀다(이광래, 1989: 366).

구조주의 거대담론의 제도 속에서 권위적이고 당연시 되어 왔던 것들에 대해 의문시 하며, 한계를 적발하고 그것을 파괴하러 나서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로잡혔던 구조주의의 확실성이라는 허황된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탈구조주의적 해체의 작업이다. 그러므로 해체는 파괴 뒤에 찾아드는 허무가 아니라 파괴 이후에 다시 부른 부활의 노래이기에 언제나 재구성을 미래형으로 구상해야 한다(서명석, 2008: 49).

이러한 해체의 길을 통해 우리는 구조주의 거대 담론에 맞게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을 만들거나, 길들이도록 만드는 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담론의 질서를 구축함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체육은 왜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는 무비판적인 사고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물음이 아니다. 이는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로 자리 해야 한다.

이는 초등학교에 있어 체육과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운동의 기본적인 기능과 지식, 태도의 습득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신체의 인식 주체로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인격적 성장의 세계로 초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의 구조주의적 담론의 질서

가 끝나는 곳에 다시 시작되는 탈구조주적 길이 펼쳐진다.



## ▣ 참 고 문 헌 ▣

- 김상환 (1997). **해체론 시대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봉석 (2000). 현대 교육과정 담론에 대한 후기구조주의적 비판 연구: 교육과정 지식의 현대성과 탈현대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석 (2007). **에크리: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서울: 살림.
- 김종우 (1997). **구조주의와 그 이후**. 서울: 살림.
- 교육인적자원부 (2008).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체육 3**. 서울: 교학사.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 서울: 대한교과서.
- 도정일 외 10인 (2004). **사유의 공간**. 서울: 생각의 나무.
- 박민정 (2005). **포스트모더니즘 담론과 교육과정 논의의 쟁점**. 교육과정연구. 23(4). 37-57.
- 변영계 (2004).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사이먼 말파스 (2008).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더니즘을 구하라**. 윤동구 옮김. 서울: 엘피.
- 서근원 (2007). **수업을 왜 하지?**. 서울: 우리교육.
- 서명석 (1999). **배움을 보는 동서양의 지평융합**. 비교교육연구. 9(1). 25-46.
- 서명석 (1999). **禪問答의 탈근대 교육적 독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서명석 (2000). **전통 心學으로 바라본 근대적 교수-학습의 한계**. 비교교육연구. 10(2). 61-84.
- 서명석 (2001). **선(禪)의 가르침과 배움으로 바라본 근대교육의 반성적 성찰**. 교육인류학 연구. 4(1). 83-102.
- 서명석 (2004). **공부의 알맹이[實]와 껍데기[殼]-그것의 왜곡과 굴절을 바라보기**. 초등교육 연구. 17(2). 127-144
- 서명석 (2008). **초등학교학교 수업에 대한 비평적 읽기: 근대교육담론에 대한 해체의**



- 도상(滄上). 교육사상연구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9-58.
- 서명석 외 3인 (2008). **초등학교학교 수업에 대한 비평적 읽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연구보고서.
- 이광래 (1989). **미셸푸코: 광기의 역사에서 정의 역사까지**. 서울: 민음사.
- 이광래 (2007). **해체주의와 그 이후**. 과주: 열린책들.
- 이정우 (2008). **신즉과 거인의 투쟁**. 서울: 한길사.
- 이혁규 외 5인 (2007). **수업, 비평을 만나다**. 서울: 우리 교육.
- 장상호 (1998). **학문과 교육(상): 학문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형주 (2004). **초등학교체육 교수법**. 충북: 협신사.
- Ball, Stephen J.(ed.) (1990). *Foucault And education*. London: Routledge.
- Bernstein, Emile (1971). *Problems in General Linguistics*. Miami, FL: The University of Miami Press.
- Bernstein, Richard (1976). *The Restructuring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Cherryholmes, Cleo H. (1988). Construct Validity and Discourses of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96, 49-50.
- Cherryholmes, Cleo H. (1988). *Power and Criticism: Poststructural Investigations in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박순경 역(1998). **탈구조주의 교육과정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Culler, Jonathan (1973). The Linguistic Basis of structuralism. In David Robey (Ed.), *Structuralism: An Introduction*.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 Culler, Jonathan (1984). *On Deconstruction: Theory and Criticism After structuralis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Doll, W. E., Jr. (1993). *A Post-Modern Perspective On Curriculum*.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김복영 역(1997). **교육과정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 서울: 교육과학사.

- Eagleton, Terry (1983).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Foucault, Michel (197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 Giddens, Anthony (1979).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riffin, David Ray(ed.) (1988). *Spirituality and Socie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awkes, Terence (1977). *Structuralism and Semio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ne, M. (1970). The Structuralist Method: Structure and Structuralism. In Michael Lane. ed. *Structuralism: A Readers*. 11-42. London: Jonathan Cape.
- Marsh, C. J., Willis, G. (2006). *Curriculum: Alternative Approaches, Ongoing Issues*. London: Prentice-Hall International.
- Peters, Michael A., Burbules, Nicholas. (1996). *Poststructuralism & Education Research*. 심승환 역(2007). **탈구조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Searle, John (1969).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ung, T. K. (1982).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hambaugh, N., Magliaro, S. (2006). *Instructional Design: A Systematic Approach for Reflective Practice*. Boston, MA: Pearson Education.
- Shapiro, Michael J. (1981). *Language and political Understanding*.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Tyler, Ralph W. (1949). *Basic principl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Ulmer, Gregory (1985). *Applied Grammatology: Post(e)-Pedagogy From Jacques Derrida To Joseph Beuy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Wittgenstein, Ludwig (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 ABSTRACT\*

### Poststructural Deconstruction of Physic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Choi, Yong–Soo

Supervised by Professor Seo, Myoung–Seok, Ph. D.

Major in the method of an elementa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PE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is under one prevailing discourse. A discourse forms beliefs that are considered true or reasonable at that time and order of interpretation. At the right center of the order is structuralism.

Structuralism does not emphasize on the true nature of certain phenomena, but focuses on finding out its structure from behind and figuring out the meaning among component parts which are composed of the structure. Those component parts are well–connected each other systematically and rationally. Such a connection does affect to achieve effective and efficient goals in a system.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February, 2009.

This kind of structuralistic characteristics is spread on PE curriculum and teaching– learning situations in elementary school. PE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consists of aims, contents, methods, and evaluations. These four parts are well–organized each other. This well–organized relation can provide a standard guideline to achieve the aims of PE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effectively. This standard guideline can promise us order, reliability, efficiency and control in managing curriculum.

This promise does work in real situations where PE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are put into practice. That is why we have believed that we can reach learning aims efficiently if we give lessons within the given time with basic teaching– learning plans that were made in advance.

However, structuralistic characteristics of PE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fixed several teaching–learning methods. Moreover, it made a poison that prevented us from reinterpreting its meaning. This is pharamakon, the medicine and the poison in PE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It is poststructuralism that deals with this poison. The criticizing form of poststructuralism is deconstruction. Deconstruction suggests problems and limitations of unchangeable absolute beliefs and reasonable order in structuralism. But this does not mean to ignore or remove all structuralism.

This deconstruction criticizes that PE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has been the Bible for teachers. The main subject of education is teachers. But teachers have been peripheral, just following the Bible. The things that should be chosen and structured by teachers become the subject of education.

This happening appears also in teaching–learning situations. Teachers give lessons according to the fixed methods and models. Teaching–learning is an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Therefore, the main groups of teaching–learning are teachers and students. Yet, the core of PE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has been proper contents and methods to reach aims effectively. In other words, teachers and students stay from the basic and central world and rush to learning aims that must be satisfied definitely.

As it has been mentioned before, this Poststructural Deconstruction questions the things that are regarded natural in the tremendous structural discourse and points out limitations and reinterprets them. Thi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for

students to acquire basic functions, knowledges and attitudes of exercise. Additionally, it will open a way to invite students to the world where they can improve their personality for the well-rounded improvement. So when the discourse order of PE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is over, Poststructuralism will open now.



Key words: Curriculum, Deconstruction, Poststructuralism, Structuralism, Teaching-learning.